

녹용 생산시기 조절 기술 개발

- 축기연 개발, 절각시기 분산으로 연중 녹용 생산 가능 -

녹용의 생산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됐다.

지난 1월21일 축산기술연구소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 조기 낙각이 되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녹용이 일찍 자라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 생산됐던 녹용이 이 기술에 의해 연중 생산이 가능,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사슴은 체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줄어드는 늦겨울 묵은 뿔이 빠지고 봄에 새뿔이 돌아나는 생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 조기에 뿔이 빠지도록 함으로써 녹용으로 이용 가능한 새뿔이 일찍 자라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사슴의 뿔은 봄에 자라기 시작, 120일 정도 성장을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뿔이 딱딱해지는 골화가 진행돼 녹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축산기술연구소 김상우 연구사

꽃사슴은 뿔이 자라기 시작해 보통 65일까지, 엘크는 보통 85일을 전후해서 절각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녹용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생산돼 왔다.

특히 남성 호르몬 억제 물질은 단 한번 근육주사를 통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쉽게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녹용의 연중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기술이 농가가 보급될 경우 한두달 사이에 집중 생산됐던 녹용을 연중 분리 생산, 녹용 및 녹혈 소비자들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필요 시기를 선택해 절각을 시행함으로써 녹용의 냉동 보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축산기술연구소 김상우 연구사는 “녹용의 생산시기 조절 기술에 이어 자연 상태에서 사슴뿔이 빨리 각질화되는 것을 막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며 “내년쯤에는 녹용의 생산시기는 물론 양질 녹용의 생산량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